

2013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사회적 문제  
의식의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이 다 애



#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사회적 문제 의식의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A research on raising awareness on social  
problems using animal images

2013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이 다 애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사회적 문제  
의식의 표현에 관한 연구

- 본인 작품 중심으로 -

지도교수   진   원   장

이 논문을 미술 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이   다   애

# 이다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상호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윤성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진원장 (인)

2012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제1장 서 론 . . . .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 . . .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 . . .	2
제2장 본 론 . . . . .	3
제1절 이론적 배경 . . . . .	3
1. 회화 작품의 의인화 역사 . . . . .	3
2. 인간의 욕망에 따른 사회적 풍자 . . . . .	7
제2절 동물 이미지의 우화적 표현 . . . . .	13
1. 회화에서의 동물 표현 . . . . .	13
2. 동물을 의인화에 따른 표현 방법의 다양화 . . . . .	16
제3절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연구자 작품 분석 . . . . .	22
1. 동물을 응용한 풍자적 표현 . . . . .	22
2. 우화의 형식을 통한 탐욕의 표현 . . . . .	26
제3장 결 론 . . . . .	32

참고문헌

참고도판

본인도판

# ABSTRACT

## A research on raising awareness on social problems using animal images

– Focusing on my works –

By Lee Da-Ae

Advisor : prof. JIN Won-jang

Department of Fine art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internal images of animals through the work of researchers in relation to modern human's nature of greed with satires and fables.

History of anthropomorphism in paintings could be traced back to ancient mythologies of Egypt and Greece. Strict distinction between humanity and the divine began to surface in the various paintings of Egyptian Mythologies and Greek Mythologies. Personification of these historical paintings showed the gap between the divine counterparts and the humans through the use of symbols of power, authority and desire. Out of the methods of distinction used, desire, especially began to show up naturally in the modern human society as well, and this was particularly evident in the 19th century French society. Honoré Daumier, a renowned artist, was well known for depicting the

absurdness of the French decadence era, showed such depictions could be related with the modern problems that we still face today.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research, allegorical representation of animals depicted in paintings was thoroughly investigated. Tigers depicted in folktales were often used as not being so scary, but humorously portraying the classical divide between the elites and commoners. Chinese contemporary artist Zhou Chunya, portrays his pet dog using surreal colors and overly exaggerated size to portray how humans rule over the animal kingdom. Another artist, Lim Sung Hee, whose work in comparison to my own, shows lots of similarities, in that we both use pigs as tools of satire. With my own work, Pigs are dressed in human clothing, standing right up, with sobering stares to illustrate the greed of modern man. In Lim Sung Hee's work, she uses various facial expressions and appearances candidly to build the elements of humor. Combining the satirical depictions of desire and greed through the use of allegorical imaginations and real world depictions of how things really are, builds up many questions and dialogue about individuals and societal structures.

These above mentioned methods relate with *Dépaysement* technique of René Magritte, because my research relates with stepping out of the norm, and changing the stereotypes by methodically altering the way of looking at things. Also Louis Wayne allegorical satire of human society using cats, and George Orwell's *Animal Farm*'s allegorical uniqueness sharply pointed out the tragic importance of power in the modern civilizations, and such cues were variously used to expand on the satire and allegorical depictions in my own research.

Perpetual satirical depictions of pigs within my own research to link the endless desire of modern man allowed me as a researcher to reinterpret humanity of modern times. Through this thesis, I hope to build a foothold to allow people to find their way back to their true nature, escaping from the greed and lust filled grim modern society.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자는 동물을 소재로 탐욕스러운 현대인들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회화에서 동물의 외형적인 특징은 의인화 특성을 반영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작가의 개성과 표현적 특성,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물질적으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더 사고 싶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다는 지나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또한 현대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걸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 상품화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CF 광고에 날씬하고 잘생긴, 예쁜 여성들의 출연으로 몸매를 과시함으로써 못생기거나 뚱뚱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듯 성형과 다이어트를 부추이고 시기 질투로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발달은 인간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했지만 풍요로움 보다 점점 물질화 되어가는 인간에게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욕망은 곧 물질적이고 대중적이라는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돼지라는 아이콘을 통해 욕심 많고 미련한 현대인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로 바라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해 욕심 많은 현대인들이 욕망의 모습에서 벗어나 꾸며지지 않은 참 모습을 찾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회화적 표현과 특성, 성격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 본인 작품이 형성된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 부분과 이를 통해 본인 작품을 분석한 것이다.

첫 번째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 부분에서는 회화작품에서 나타난 의인화 역사에 대한 것으로 고대 신화와 미술사에 나타나는 의인화된 신들의 상징, 권력에 대한 표현을 관련 도판을 제시하여 설명 하였다. 인간의 욕망에 따른 사회적 풍자에서는 오노레 도미에와 윌리엄 호가스, 피터 브뤼겔의 작품 분석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서민사회, 부르주아 계급을 풍자하는 작품을 연구하였다.

두 번째는 동물 이미지의 우화적 표현에 관한 연구로 회화에서 표현된 동물을 분석하였다. 민화의 호랑이부터, 자신이 키우는 개를 주인공으로 작업하는 중국의 조우춘야, 본 연구자의 작품과 유사한 임성희의 돼지작품을 연구하였다.

동물 의인화에 따른 표현 방법의 다양화에서는 르네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을 통해 현실로 부터 이탈하여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주는 초현실주의 작품을 제시하였고, 루이스 웨인이 표현한 고양이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의인화된 고양이의 모습으로 풍자하는 작품을 연구하였다.

마지막 본 연구자의 작품 분석으로 작품에 나타나는 동물 의인화 표현을 통해 현대인의 끝없는 욕망에 대한 모습을 풍자 시켜 동물을 응용한 현대사회의 재구성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하였다.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돼지의 모습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화적으로 표현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작품의 표현 방법, 제작의도를 통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은 현대인들을 재해석하며 끝없는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본 주제에 관련된 논문과 도판을 제시하고, 유사한 작가 분석을 통해 결론을 이루고자 한다.

## 제2장 본 론

### 제1절 이론적 배경

#### 1. 회화 작품의 의인화 역사

의인화란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의 의인화는 그리고자 할 대상의 가치를 자신만의 감성을 이입하여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의인화는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지식을 주거나 교훈을 준다. 의인화 역사는 신화, 설화, 민담 등 동물이 지배적으로 많이 등장한다. 의인화는 예로부터 신화를 통해 미술사에 많이 사용되어왔다. 신화 속 동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인간의 욕구를 표현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해 온 역사는 선조들이 이루어 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인화 역사를 통해 신화와 미술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류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프로메테우스(Prometheus)

앞일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로운 신으로 ‘먼저 생각하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고대 그리스 신화에 묘사된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 인간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는 인간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인류의 수호자 였기 때문에 신들만 사용하던 불씨를 인간에게 훔쳐다 줘 이를 알고 괘씸하게 여긴 제우스는 끔찍한 벌을 내렸다. 제우스는 모든 신들의 왕으로 권력을 주거나 빼앗을 수 있고, 범죄자를 벌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의 재앙을 막는 위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불’ 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을 구별해 주고 문명을 상징한다. 즉, 프로메테우스는 본래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질서를 혼란시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인간들은 불을 선물 받고 난 후부터 불을 이용해 동물들을 복종시킬 무기와 땅을 경작할 연장을 만들었고,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따뜻하게 생활해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를 지배하는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처벌을 내리게 된다.

산 절벽에 쇠사슬로 묶어, 양쪽 팔과 다리에는 쇠고리가 채워지고, 가슴에는 강철 썰기가 박히고, 옆구리에는 무쇠 띠가 둘러쳐진다. 그런 다음 자신의 독수리를 보내 간을 파먹게 한다. 하루 종일 파 먹힌 간은 밤새 원상 회복되어 다음 날 다시

독수리의 표적이 된다. 반역에 대한 처벌은 이렇듯 가혹하게 지속된다.<sup>1)</sup> 당시 처벌 받는 모습을 페테르 파울 루벤스<sup>2)</sup>가 <사슬로 묶인 프로메테우스>(도판-1)를 표현 했다. 거대한 독수리와 알몸의 프로메테우스를 대각선 구성의 화면에 끌어 당겨 독수리가 그의 배를 찢고 날카로운 부리로 생각을 끄집어 내는 순간을 표현했다. 간이 매일 자라나 고통을 겪는다는 인체의 한 부분을 의인화된 묘사를 통해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연민을 표현한 것으로 권력 앞에 조아리지 않는 용기를 표현한 잔혹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판-1) 페테르 파울 루벤스, 사슬로 묶인 프로메테우스, 1611~1612.

(도판-2) 에티엔 조라, 바다의 신 넵투누스, 1699~1789.

## 2) 포세이돈(Poseidon)

강정 기복이 심하고 난폭한 바다의 해신(海神)으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묘사된다. 대표적인 상징물 삼지창을 들고 흰 말들이 끄는 황금 전차를 타고, 파도치는 바다 위를 질주한다. 삼지창으로 땅을 치면 땅이 흔들리면서 갈라지고 바다를 치면 높은 파도가 일어나 배가 모두 가라앉았다. 그가 평온해지면 바다도 조용해지고 바다 속에서 새 땅이 떠올라 삼지창을 가지고 물을 지배할 수 있었다. <바다의 신 넵투누스>(도판-2)작품을 살펴보면, 포세이돈은 머리와 수영을 휘날리며 말이 끄는 수레에 탄 모습으로 표현된다. 역동적인 포즈로 삼지창을 거머쥔 채 마치 파도처럼 날뛰는 말들을 조련하고 있다. 그 삼지창 아래로 한 명의 인물이 보이는

1) 윤일권, 「그리스 신화의 반항아들」, 사군자출판, 2006, p.25.

2)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

데, 소라 고동을 불고 있는 그는 포세이돈의 아들인 트리톤(Triton)이다. 상체는 인간의 모습이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을 한 반인반어(半人半魚)로서, 물 밖으로 튀어 나온 물고기 꼬리를 의인화된 인체 일부분의 묘사로 인물들의 감정이나 재현에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3) 메두사(Medusa)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메두사의 머리카락 뱀들은 머리가 삼각형인 독사들이다.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돌로 변하게 만드는 괴물로 표현된다. 메두사는 거울이 달린 방패를 이용하여 페르세우스<sup>3)</sup>의 손에 죽었다. 죽고 난 이후 메두사의 잘린 머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돌로 만들었다. 메두사의 시선은 치명적 아름다움과 끔찍한 공포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상징한다.

카라바지오<sup>4)</sup>가 그린 <메두사>(도판-3)에서 의인화된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카라바조는 메두사의 얼굴 부분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나무 방패에 붙인 유화 작업으로 빛과 어둠의 강렬한 명암대비가 느껴진다. 뱀으로 변한 꿈틀거리는 과장된 머리카락 묘사와, 목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섬뜩한 느낌을 의인화하여 인간의 고통스러움을 의인화기법을 통해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잘린 머리를 그렸지만 메두사는 여전히 의식이 있는 모습으로 표정을 통해 삶과 죽음의 결합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충격에 빠진 메두사의 눈과 찡그린 눈썹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을 나타낸다. 카라바조는 이 그림에서 불룩한 방패의 표면을 오목하게 보이도록 하고 메두사의 머리는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했는데 이는 기법적인 면에서 큰 성과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도판-3)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메두사, 1596~1598.

3) 페르세우스(Perseu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4) 카라바지오(Michelangelo da Caravaggio, 1573 ~ 1610):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의 대표적 화가.

#### 4) 인어(mermaid)

인어는 상반신(上半身)은 사람의 몸(주로 여자), 하반신은 물고기의 모습을 하였다는 전설상의 생물<sup>5)</sup>로 미술사에서는 매혹과 공포, 호감과 혐오의 상반된 감정으로 묘사된다. 존 워터하우스<sup>6)</sup>의 작품에서 인어의 매력을 찾아 볼 수 있다.

워터 하우스는 고대 시대의 역사나 신화와 문학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주제로 팜므 파탈 혹은 신비로운 매력을 지닌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인은 세이렌이라는 예쁜 얼굴과 몸매, 목소리로 뱃사람을 유혹하는 바다의 딸로 묘사된다. 세이렌을 자주 등장시켜 신화나 전설에서 인어, 물의 요정으로 의인화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워터하우스가 그린 <인어>(도판-4)작품에서 의인화된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인어는 상체는 인간, 하체는 비늘로 뒤덮인 꼬리가 달려 있다. 파도를 맞으며 찰랑거리는 황금빛 머리카락을 빗고 있다. 눈부신 금발과 투명한 피부, 하체를 휘감은 물고기 꼬리와 표정은 고혹적이고 어딘지 위험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

워터하우스가 물결치는 긴 머리카락을 빗는 인어를 그린 것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다. 음유시인들은 인어가 뱃사공의 영혼을 유혹하기 위해 바위에 앉아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는다고 노래했다. 중세에는 긴 머리, 빗, 거울을 창녀의 전유물로 여겼다.<sup>7)</sup>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 인어는 음탕한 여자를 의미한다. 즉, 의인화된 인어의 모습은 남성을 유혹하는 팜므파탈로 묘사하였다. 워터하우스는 팜므파탈의 전형을 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19세기 여성들의 우아함과 매력을 의인화된 모습으로 예술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판-4) John William Waterhouse, 인어, 1892~1900.

(도판-5) Sandro Botticelli, 비너스의 탄생, 1485~1486.

5) 네이버 지식백과.

6) 존 워터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 1849 ~ 1917): 19세기 영국의 화가. 라파엘 전파주의 작가.

7) 이명옥, 「팜므 파탈, 치명적 유혹, 매혹당한 영혼들」, 다빈치, 2003, p.89-90.

## 5) 비너스(Venus)

비너스는 조개 안이나 바다의 거품에서 나왔다는 의인화된 모습으로 여성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비너스를 소재로 여신을 묘사한 보티첼리<sup>8)</sup>의 작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술사에서 보티첼리는 가냘픈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묘사하기로 유명하다. <비너스의 탄생>(도판-5)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의 탄생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비너스는 바다 거품으로부터 태어났다고 묘사된다. 진주조개를 타고 바다 위에 서 있다. 그림 왼쪽에는 바람의 신이 날개를 달고 바람을 일으켜 해안으로 인도 해주고, 오른쪽 봄의 여신이 외투를 들고 비너스를 맞이해주는 모습은 의인화의 특성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탄생을 축하하는 장미 꽃잎이 흩날리고 있고, 비너스는 방금 깨어난 듯 한 표정과 부드러운 곡선의 나체를 감추려는 수줍어하는 모습으로 미의 여신임을 강조하는 10등신으로 표현되어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당시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던 유화 기법이 아니라 중세 이래 사용되던 템페라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 화려한 장식성이 한층 더 강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sup>9)</sup> 템페라는 투명 물감이기 때문에 보티첼리의 투명한 색채 효과기법이 비너스의 탄생 작품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판을 통해 고대 그리스 신화와 고대 로마 신화, 미술사에서 표현된 회화 작품의 다수가 신들이나 영웅의 이야기를 의인화 기법을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의인화된 모습들은 역사적으로 예술가의 의도적인 개입을 통해 형상이 과장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는 등 그 의도와 목적대로 변화한다. 동물의 몸체에 인간의 머리를 합성하거나 인체를 토대로 동물의 상징적인 뿔, 꼬리를 인용해 표현되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의 작품에서 표현되는 의인화 기법은 오래전 신화 속에서 동물의 형상들을 통해 시각적 효과를 주고, 고대 신화에서부터 현대를 이르기까지 소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 2. 인간의 욕망에 따른 사회적 풍자

앞 장에서 살펴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욕망과 권력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에게 나타난 현실의 불합리는 탐욕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미술사에서 풍자적으로 표현되었다. 오노레 도미에와 윌리엄 호가스, 피터 브뤼겔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한다.

8) 산드로 보티첼리(Sandro Botticelli, 1445 ~ 1510):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화가.

9) 다카시나 슈지 지.신미원 옮. 「명화를 보는 눈」, (주)놀와, 2002, p.30.

1)오노레 도미에 (Honoré Daumier, 1808~1879)

19세기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사회현실을 예리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파헤쳐 풍자화가와 석판화가로 손꼽히는 표현파(表現派)이다. 도미에가 풍자화가로서 출발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체험해 온 부르주아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시작된다. 1830년 도미에는 화필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데,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민주발전이 배신당하자 이에 분노한 서민계급은 자신들의 불만을 대변해 줄 표현을 요구하기에 도미에로 부터 부르주아 계급의 기만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풍자화를 택하게 된다. 풍자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판화기법을 사용하는데, 16세기 이래로 판화는 조형예술가운데 기성권력에 대항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식이었다. 그의 석판화 작품 속에 표현된 명확한 흑백의 대비에 의한 빛의 효과와 풍자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자유분방하고 거친 터치들은 도미에의 개성적인 표현방식이 현대미술로 향하는 징검다리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도미에는 신고전주의의 영웅 숭배와 낭만주의에 반대하면서 미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시도함으로써, 도시의 부랑아와 뒷골목, 중산층들의 일상 등을 회화의 소재로 등장시켰다. 1831년 시사 주간 풍자잡지 『라 카리카튀르 La Caricature』에 실린 석판화 <가르강튀아><sup>10)</sup> (도판-6)는 도미에를 유명하게 만든 풍자화의 대표작이다.



(도판-6) 오노레 도미에, 가르강튀아, 1831.

(도판-7) 오노레 도미에, 각료석에 앉은 의원들의 배.

10) 가르강튀아(gargantua): 프랑스작가 라블레(Francois Rabelais 1495~1853)의 풍자소설 '가르강튀아와 팡타그뤼엘' 이야기에서 가르강튀아는 바보 같지만 온유하고 게으른 왕으로 표현 하였던 것, 도미에는 루이 필립을 이 '가르강튀아' 와 같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블레<sup>11)</sup>(Rabelais)가 쓴 16세기의 소설 주인공인 게으른 왕 가르강튀아로 묘사된 루이 필립 왕은 엄청난 몸집을 가진 거인으로 탐욕의 대식가인 배 모양<sup>12)</sup>의 머리를 한 국왕의 모습을 담았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가난한 백성들이 바친 금화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고, 의자 밑으로 훈장과 서류를 배설하는데 정치인들은 국왕이 배설한 쓰레기를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인물로 그렸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백성들이 먹을 것을 바치는데 하는 일 이라고는 서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 작품은 서민들을 억압하고 부르주아 위주의 정책을 펼쳤으며 훈장을 남발했던 왕의 정책을 풍자했다. 당시 체제의 실태와 본질을 폭로한다. 도미에는 당시의 타락한 사회 제도나 인간의 욕망, 허영심, 어리석음을 객관적인 관찰 분석과 냉혹한 시선을 통해 그 시대의 인습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진실 된 세계를 보여주고자 했다. <각료석에 앉은 의원들의 배>(도판-7)를 보면 탐욕 가득한 정치인의 숨은 모습이 담겨 있다. 속물뿐인 정치인들의 우쭐함과 수다스러움은 직업적인 냉소주의로 충만 되어 자기 변론에 열중하고 있고 자기도취 되어 있다.

칸트(Kant)는 『판단력비판』(判斷力批判, Kritik der Urteilskraft)에서 풍자의 본질은 특징적인 것의 과장(誇張), 즉 규범적 이념내지 평균적 형상의 개별적 이탈(逸脫)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그러한 규범적 이념의 형상화, 예를 들면 매우 곱상스런 얼굴이라든가 전혀 흠이 없는 인간의 모습은 화가에게 모델로서의 매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초상화도 특징의 형상화를 향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풍자화와 차이점은 다만 정도 문제일 뿐이다. 이 정도는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화가와 초상화의 모델 혹은 주문자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수가 종종 있다. 모델에 가까운, 특징을 잘 살린 초상화를 보고 고의적인 풍자화로 느끼는 수도 많다. 따라서 풍자화와 세간에 말하는 회화 사이에는 어떠한 분명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sup>13)</sup> 예술가는 정치적 환경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다. 그들은 사회의 변화와 사건을 직접 체험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동기를 키워 간다.<sup>14)</sup> 이렇듯 풍자화는 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멈추지 않고 사회 비평가인 동시에 도시의 빈민층의 소시민들에게는 인간적인 공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사회풍자화에서 보여 주는 인간 소외를 배격하고 인간적 진실에서의 귀의를

11) 라블레(Rabelais, 1483 ~ 1553): 프랑스의 작가이자 의사, 인문주의 학자.

12) 배: 프랑스에서 바보 멍청이를 뜻 하였다.

13)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저, 최종고 역, 「도미에의 사법 풍자화」, 열화당, 1900, p.34.

14) 김현화, 「미술,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도시가 되다」, 이담북스, 2010, p.137.

촉구하는 도덕적 메시지는 오직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 그가 바라고자 하는 이상적인 현실의 추구라는 그의 높은 도덕성을 발견할 수 있음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작품의 주제들이 외부적인 현실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로 귀착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위선적인 가면아래 존재하는 부조리와 추악함을 헤쳐 낸 그의 풍자화는 우리에게 예술적인 진실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sup>15)</sup> 결론적으로 도미에는 작품을 통해 첫 번째는 풍자의 본질은 특징적인 것의 과장 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어 솔직한 묘사를 풍자의 기법을 통해 사회를 고발했다고 볼 수 있다.

## 2) 윌리엄 호가스 (William Hogarth, 1697 ~ 1764)

호가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재치, 자유로운 표현력으로 18세기 영국 사회를 판화의 기법을 통해 풍자했다. 자신이 자란 런던을 중심으로 이웃의 삶을 가식 없이 포착하여 서민계층의 호응을 이끌어 내면서 애환을 묘사한 작품을 통해 폭넓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 작가이다. 작품 속에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사악하고 교활한 사람이라기 보다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묘사된다. 주어진 상황에 휩쓸리다가 인생이 반전되는 상황을 풍자적으로 묘사한다. 가장 잘 알려진 풍자적인 작품은 <진 거리>(도판-8), <맥주 거리>(도판-9)이다. 두 작품은 모두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는 원인과 결과를 보여주는 극과 극의 작품이다. 당시 런던은 범죄의 원인으로 서민들의 지독한 술 문화가 지목됐고, 술 소비 감소를 위해 법까지 제정되었다. 당시 물 대신 마시던 맥주와 사과주가 가격이 폭등하여 값싼 진이 순식간에 서민들의 필수품이 된 것이다. <진 거리>(도판-8)작품은 빈민가를 배경으로 독한 진(술)에 취해서 저지르는 사회의 모든 악행들을 폭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에 한 여인은 대낮부터 진을 마신 탓에 아이가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앉아있다. 바로 앞에 갈비뼈가 다 드러난 남자는 배고픔 탓에 거의 빈사상태다. 왼쪽에는 노인이 개가 먹던 뼈를 가로채려하고 있다. 굶주림 앞에 인간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건물은 허물어진 채 방치돼 있고,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독한 진에 취해 흥청망청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 유일하게 번영하는 곳은 그림 왼쪽 끝부분의 가발을 쓴 전당포 주인뿐이다. 진을 사기

15) 안병학, 『Honoré Daumier의 諷刺畫 研究』, 영남대 석사논문, 1986, p.50.

위해 전당포에서 목수는 공구, 여인은 가사 도구를 전당 잡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반면 <맥주 거리>(도판-9)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활기에 넘친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즐기는 듯 한 기분이다. 건물은 보수가 잘되었고, 간판은 깨끗하다. 사람들은 맥주를 음료로 생각하고 즐기고 있다. 유일하게 녹슨 건물은 오른쪽 끝자락에 그려진 전당포 뿐이다. 폐업 상태인 전당포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경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영국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였다. 이 두 작품 <진 거리>는 술에 취해 저지르는 악행을 폭로하는 모습과 <맥주 거리>의 풍요로운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호가스의 작품을 통해 재치 있는 기법이 자유로운 인간의 개성을 포착해 풍자적으로 묘사하기에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도판-8) 윌리엄 호가스, 진 거리, 1751.



(도판-9) 윌리엄 호가스, 맥주 거리, 1751.

### 3) 피터 브뤼겔, (Pieter Bruegel, 1525 ~ 1569)

16세기 네덜란드 거장 브뤼겔은 탐욕을 풍자적으로 표현한다. 1566년에 제작된 드로잉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도판-10)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탐욕의 끝을 과장적으로 묘사했다.

작품을 보면 탐욕스러운 큰 물고기의 배와 입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쏟아져 나온다.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는 듯하다. 큰 칼로 물고기의 배를 가르니 더 작은 물고기들이 뱃속에서 쏟아져 나온다. 어부는 물고기가 너무 커서 삼지창을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몸 위로 올라간다. 육지와 바다는 물고기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어

부들은 큰 물고기가 토해낸 작은 물고기를 미끼로 낚시를 하고 있다. 두 다리가 달린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입에 물고 걸어가고, 어떤 물고기는 건조를 위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며 머리위로는 물고기가 새가 되어 하늘에서 날고 있다.

물속의 큰 물고기들은 쏘아진 물고기 중의 한 마리를 물고 있거나 삼키는 상태에서 머리를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모습을 배에 타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 “아들아 보거라. 나는 오랫동안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 것을 알고 있었다.”<sup>16)</sup>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은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브뤼겔의 메시지인 듯하다. 브뤼겔의 작품 표현 방법은 화면 가득 인물을 등장시켜 흥미로운 상황을 연출하는 파노라 기법을 사용한다. 등장인물의 표정과 동작을 자세하게 표현하는데 선은 간결하고 색채의 대비를 강렬하게 사용한다. 다양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과정과 왜곡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장점을 가지고 표현한다. 물고기를 그린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펜으로 다양한 묘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브뤼겔은 이 드로잉 작품을 통해 낚시와 물고기를 소재로 인간 속에 있는 멈추지 않는 탐욕과 욕망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 삶의 어두운 이면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현대시대에 살아가면서 당당히 풍자화라고 언급하는 화가는 극히 드물다. 앞에서 살펴본 인간의 욕망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오노레 도미에와 윌리엄 호가스, 브뤼겔의 작품을 통해 풍속화가로서 그치지 않고 진실과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들 수 있다.



(도판-10) 피터 브뤼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1556.

16) 오문섭, 『돼지 형상을 통한 자아 표현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0. p.9.

## 제2절 동물 이미지의 우화적 표현

### 1. 회화에서의 동물 표현

#### 1) 민화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소박한 민간 해학을 민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민화 하면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 위엄을 돋보이게 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화의 호랑이를 살펴보면 동물의 왕 호랑이가 결코 무섭지 않고 오히려 어수룩하고 얼빠진 모습으로 그려진 경우가 많다. 까치나 토끼와 같은 약한 동물들이 호랑이를 골탕 먹이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는 신분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억울함을 서민들을 대신하여 불공평한 신분차별에 대한 불만을 항변하는 것이다. 까치는 힘없는 서민을 대표하며 호랑이는 권력을 빙자한 관리를 상징한다.

<호랑이 가족>(도판-11)에 표현된 호랑이를 보면 어미 호랑이를 중심으로 한 마리는 등에 타고 다른 두 마리는 땅에서 놓고 있는 호랑이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되었다. 호랑이 눈은 술에 취한 듯 뱅글뱅글 돌고 있고, 치아도 매우 부실하여 동물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줄무늬는 일정한 패턴으로 단순화되어 친근하고 부담 없는 어린아이 그림과 같이 표현되었다. 이 작품에서 호랑이를 우스꽝스럽게 그린 이유가 따로 있다. 어미 호랑이 앞에 ‘어른이 떳떳하게 효를 보배롭게 여겨야 한다.’ 라는 경구에서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못생긴 호랑이 가족이지만, ‘효’ 로써 가족의 우애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못생겼지만 따뜻하고, 못났지만 사랑스러운 호랑이 가족은 오늘 날에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캐릭터다.<sup>17)</sup> 맹수의 호랑이가 위엄을 돋보이게 그리는 것이 원칙인 반면에 바보로 표현하는 역발상은 민화에서 가능하게 친근하고 부담 없는 존재로 격하시켜 까치와 같은 약한 동물인 서민들을 대신하여 평등에 대한 세계관을 해학을 통해 서민과 양반의 불공평한 신분차별, 즉 권위를 단숨에 끌어내리는 민화의 작품 세계는 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인 것이다. 이처럼 동물 이미지는 무의식을 그림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또 다른 생동감을 느끼고 내면의 감정들과 본질의 성격을 의인화를 통해서 특징적이고 상징적으로 다양한 표현의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17)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2011, p.205.



(도판-11) 작가 미상, 호랑이가족, 19세기 말 ~ 20세기 초.

(도판-12) 조우춘야, Two TT, 1997.

## 2) 조우춘야(Zhou Chunya, 1955~ )

중국의 초록 개 시리즈로 유명한 조우춘야는 온화와 폭력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그림에서 나타난다고 평가받는 작가이다. 예로부터 개는 사냥 분야에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 왔다. 현재는 야생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되어버렸다. 인간과 더불어 발전해 가는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주인을 지켜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서로 애정을 주는 충실한 동반자로서 친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더욱 더 자의식을 과시하면서 자신과 구별되는 힘없는 동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우춘야는 자신이 키우는 독일 개를 작품에 등장시켜 파괴와 해체의 통쾌함을 보여주는 느낌을 표현한다. <Two TT>(도판-12)를 보면 섬뚱하고, 충격적인 색감에서 드러나는 강력함과 친숙함이 동시에 드러난다. 주로 표현되는 녹색은 서정적이고 그 안에는 평온함이 느껴진다. 작품 표현 방법은 강렬한 색채와 붓 터치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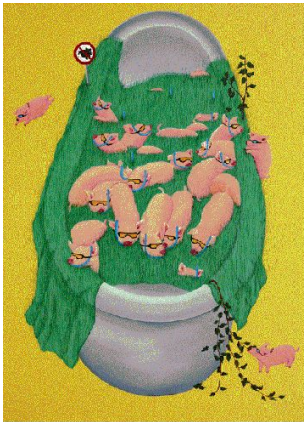
캔버스에 온화와 폭력, 강렬한 색채, 내적인 카리스마와 같이 끊임없이 이중적인 의미와 표현의 특성을 띤다. 정서적 불안과 초조함을 녹색 개라는 개성적인 아이콘으로 그려낸다. 처음에는 원래 모습처럼 검은색으로 그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크기로 등장한 ‘초록 개(헤이건)는 어딘가 고독하면서도 우스꽝스럽고 천진한 모습이다. 즉 헤이건의 모습은 사실상 조우춘야를 포함한 현대인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고 주위 배경을 생략하고 홀로 등장해 고요한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입을 헤벌린 채 붉은 혀를 늘어뜨린 독특한 터치는 훨씬 살아 있는 모습으로 느껴



저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자 또한 조우춘야의 작품에서 동물의 이미지를 주인공으로 등장 시킨 것에 본인의 작업의도와 비교하고 분석해 향후 새로운 작품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3) 임성희(Lim sung hee, 1979~ )

임성희의 작품에서 표현된 돼지는 본 연구자가 우화적으로 표현하는 돼지와 유사한 작업을 한다. 돼지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이미지를 그대로 빌려 작가의 체험과 상상 속 감성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임성희의 그림을 볼 때 우선 생각나는 것이 해학(諧謔)적 익살이다. 해학과 익살은 우리 민족의 전래되어 온 그림들에 많이 나타났던 주제이다. 해학은 사전에 의하면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지칭한다. 돼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복(福)과 다산의 상징이다. 전통적으로 길상(吉祥)의 의미로 돼지를 그려 걸어놓는 민예적인 풍토가 있다. 또는 그 반대의 상징으로 탐욕과 게으름의 상징도 있으며 금기시하거나 멸시하는 지역도 있다. 작가는 이 두 가지의 뜻을 포함한 상징적인 돼지를 표현한다. 길상으로서는 사회적인 바람이나 풍자의 대상을 작품에 따라 때로는 복을 상징하기도하고 현실의 비유에서 오는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판-13) 임성희, 행복한 중독, 2008.

(도판-14) 임성희, 미스 '진', 2008.

(도판-15) 임성희, 정복자, 2010.

<행복한 중독>(도판-13)에 표현된 잔디밭이라는 한 공간에서 돼지들은 각자의 놀이를 즐기고 있다. 그들을 무리지어 있으면서도 혼자라고 생각한다. 같은 공간에 존재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놀이를 집중해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과거를 부정하고, 새로운 것, 충격적인 것을 끊임없이 생산해 내는 욕망에 의해 당연함 안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는 동물과 사물의 의인화라는 표현양식을 이용하고 있다. 작가의 그림 속 돼지들은 능청스럽다. 현실의 돼지는 꽃분홍의 립스틱으로 외양을 단장하지 않지만, 작품 <미스'진'>(도판-14)을 보면 분홍 립스틱과 분홍색 매니큐어로 외양을 단장하고 인간의 흉내를 내는 듯 포즈를 취해 웃음을 자아낸다. <정복자>(도판-15)는 마르셀 뒤샹의 변기 '샘'의 이미지를 차용해 '욕망의 샘'이라 지칭하여 표현된 작품이다. 물질문명 사회에서 존재하는 금전욕, 명예욕, 권력욕, 우리는 그런 세속적 욕망의 바다에서 헤엄치듯 살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살아 남기위해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총알이 날아와도 아무렇지 않은 듯 거만한 눈빛으로 허세를 부리며 콜라를 빨대로 빨아먹고 음악을 들으며 고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폰은 그 어느 음악 기기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장식품 일뿐이다. 한마디로 품과 허풍인 것이다. 현대인들은 욕심에 가득 차 삶을 꾸미고 겉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과한 욕심을 부리며 욕망을 위해 스스로 상처를 입고 남을 공격해서 상처를 받는다. 정복자 작품은 욕망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잊고 파괴 본능으로 생을 치장한다는 의미를 가진 현대인을 풍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화적 표현은 본 연구자의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우화의 기법을 통해 불편할 것 같은 장소에서 작가의 상상력으로 경계를 무너뜨려 일상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담아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채워질 수 없는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져 보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작가만의 풍자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게 한다.

## 2. 동물을 의인화에 따른 표현 방법의 다양화

현대에 와서 의인화는 동물을 통해 인간에게 교훈이나 지식을 주거나 문화예술의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표현방식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등장하는 동물캐릭터라 할 수 있다.



한국의 70, 80년대는 문화예술전반에 있어서 사전심의와 검열이 심했던 시기였다. 1983년 아기공룡 둘리를 탄생시킨 만화가 김수정은 “아이가 친구와 껴안고 있는 것도, 어른한테 반말하는 것도, 멍청하고 모자라게 구는 것도 다 규제대상이었다. 야하다거나 예의 없다가나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 좀 모자라고 덜떨어지게 굴어도 규제가 느슨했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을 제대로 풀어가기엔 동물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고 말한다.<sup>18)</sup> 이렇듯 만화나 애니메이션 속 동물 의인화는 자유로울 수 있었고 인간의 상상력을 유발시켜 감성을 표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의인화 표현에 있어서 동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다양하게 연구하고 표현하였던 작가들의 작품은 많다. 그 중 르네마그리트, 루이스 웨인, 윌리엄 웨그먼의 작품을 예로 그 표현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동물을 우화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인간의 미개하고 본능적인 성질과 결부시켜 표현하였는지를 본 연구자 작품의 표현방법과 내용 전달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함이다.

#### 1)르네 마그리트 (René Magritte, 1898~1967)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세밀히 표현하면서 동시에 관례적인 틀로부터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 시키는 데페이즈망(depaysment) 기법을 이용하였다. 어떤 존재든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 캔버스에 표현된다.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상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되,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소들을 동일한 화폭에 결합시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장소에 어떤 오브제를 표현해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을 불러 일으켰다. 현실로부터 쉽게 이탈하여 무한한 자유와 상상의 공간으로 가게 하는 데페이즈망을 통해 두 사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 시켜 절대 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이 한 그림 안에 존재하는 방법으로 작은 물건을 크게 확대하거나 생물과 무생물, 현실과 비현실 등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표현했다.

마그리트는 다음과 같은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표현한다.

1. 고립- 어떤 사물을 원래 있던 환경에서 떼어내 엉뚱한 곳에 갖다놓는다.
2. 변화- 작은 사물을 엄청난 크기로 확대하는 식으로 변화 시킨다.

18) 이견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형상에 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1, p.11~12.

3. 만남-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두 사물을 나란히 붙여놓는다.
4. 이미지의 중첩-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을 겹쳐 한 그림 안에 존재한다.
5. 변경- 독수리를 돌의 재질과 같이 변형시키는 식으로 사물이 가진 성질 가운데 하나를 바꾼다.

데페이즈망 기법으로 그린 작품 <Song of Love>(도판-16)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 두 연인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두 연인은 사람이 아닌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상체 머리 부분은 물고기의 것이고 하체는 인간의 다리를 가지고 한 생명이 다정하게 해변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보이는 그림에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인 이 작품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면서도 몹시 해학적인 느낌이다. <공동의 발명>(도판-17) 또한, 바닷가에 누워 있는 상체는 물고기 하체가 사람인 모습을 한 생명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인어공주와는 반대로 사람의 다리를 가진 물고기가 바닷가에 누워 있는 모습은 정말 아이러니한 해학성이 느껴진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함으로써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익숙한 것들을 기이하고 낯설게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 인체 일부분을 동물의 몸과 결합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인어로 표현되어져 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표현함으로써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느껴 착각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도판-16) 르네마그리트, Song of Love, 1913-1914.

(도판-17) 르네마그리트, 공동의 발명, 1935.

## 2) 루이스 웨인 (Louis Wain, 1860~1939)

영국의 유명한 캣아티스트 작가 루이스 웨인은 고양이를 의인화 시켜 눈을 크게 그리는가 하면 사람의 옷을 입고 활동하며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작품의 표현 방법은 붓과 펜을 이용해 고양이들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화책에 등장하는 캐릭터처럼 일러스트로 표현한다. 루이스 웨인이 활동 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영국에는 쥐를 잡기 위해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고양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시작되는 시기였다. 작품 속에 고양이들은 인간을 대신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파티를 하며 친구와 수다를 즐긴다. 고양이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데는 루이스 웨인 자신의 덕도 적지 않게 있었다.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루이스 웨인의 고양이 타생헌건 의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우연의 산물이었지만, 영국은 동물이 주인공이 되어 인간세상을 풍자하는 전통이 강한 나라에 있어서 인지 고양이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난 기쁨과 삶의 진정성을 찾아줬다. <사교계 여성의 데뷔, 첫 시즌>(도판-18)을 보면 고양이들이 도도한 표정으로 안경과 돋보기를 쓰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며 신문,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인간사회를 보여주고 당시의 문화를 풍자하고 있다. <휴가철 기차역>(도판-19)작품은 멀리 보이는 열차를 타고 여행 가려는 듯 짐을 싸서 두발로 걸으며 마치 인간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과 같이 일상생활을 의인화한 유쾌한 고양이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적인 습성을 지닌 동물 이미지는 상상의 비중이 커진 판타지 문학이나 요정 이야기들이 풍부해진 19세기에 주로 나타났다. 이때가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시기였다.



(도판-18) Louis Wain, 사교계 여성의 데뷔, 첫 시즌, 수채화.



(도판-19) Louis Wain, 휴가철 기차역, 수채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했다. 소위 ‘빅토리아적인 윤리’라 불리는 도덕적 기준은 인간의 원초적 본성을 외면하는 비현실적인 면모를 띠고 있었다. 절제와 체면, 그리고 예의 바름이 인간 본연의 욕망이나 감정보다 훨씬 고귀하게 여겨졌다. 어찌 보면 이 시기에는 지나치게 ‘점잖음’이 강조되는 바람에 인간이 저마다 지닌 천진난만한 어린애다움이 억압받았다. 그래서 끼 있고 교활하며 터무니없이 장난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루이스 웨인은 차라리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삼았는지도 모른다.<sup>19)</sup> <초기 인디언 아일랜드풍>(도판-20),(도판-21)은 루이스 웨인이 건강이 쇠약해져 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수용되어 진행된 작품이다. 초기작품은 다소 자유롭고 활기차지만, 정신 분열증이 걸린 뒤에는 일상생활 속의 의인화한 평범한 고양이들 위주로 그렸다. 정서적 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려 고양이들의 털이 날카로워지면서 눈에는 귀여움과 즐거움이 아닌 불안감과 초조함, 허무함 등 거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작가의 정서적 불안에 시달리는 내면의 불안감, 우울함, 허무함을 표현해 내고 있다. 정신분열증을 앓기 전의 작품들에서는 고양이와 배경이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후의 작품들에서는 고양이가 홀로 등장하면서 눈은 커져있고 털은 뾰족하게 서 있다. 화가의 내면이 엿보이는 작품이다.



(도판-20) Louis Wain, 초기 인디언 아일랜드풍.

(도판-21) Louis Wain, 초기 인디언 아일랜드풍.

19) 최민우 옮, 「루이스 웨인의 웃기고 슬프고 이상한 고양이들」, 저공비행, 2012, p6.

### 3) 윌리엄 웨그먼(William Wegman, 1943~)

자신이 키우는 개 만 레이(Man Ray)를 20x24인치 대형 폴라로이드카메라로 촬영해 의인화 작업을 한다. 사진 속 만 레이는 일상적인 공간 안에 다양한 옷차림과 소품으로 분장하여 사람의 모습을 코믹하면서도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보여준다. 분장과 공간연출을 통한 웨그먼의 구성사진은 기본적인 표현 매체를 사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징성을 부여한 오브제들을 새로운 공간 구성을 통하여 의미의 증폭이나 과장, 왜곡, 변질을 시도하여 새로운 형태의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다.<sup>20)</sup> 작품의 표현 방법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개를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 사진 구성과 형식은 ‘인물 사진’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는 정작 인물이 아닌 ‘개’가 자리하고 있다. 배경을 최소화하고 개를 중심으로 작업한다. 윌리엄의 연출된 작품을 보면 보편적인 사진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의인화를 통해 인간의 행위를 개가 하도록 구성하여 인간의 모습을 더 인간답게 표현하고 인간의 진실한 삶을 바로 그려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작품 <Mother and Daughter>(도판-22)와 <Walker>(도판-23)를 보면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도판-22) William Wegman, Mother and Daughter, 1994~2009.

(도판-23) William Wegman, Walker, 1991~2009.

20) 이견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형상에 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1, p.17.

한편 작품에 등장하는 개는 조롱의 대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주인 잘 만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인간 같기도 하고 작품 속의 모습은 더 이상 개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멋있지만, 웨그먼의 작품에서 개가 조롱의 대상으로 표현된 것은 깊은 주인에 대한 애정의 상징이며 개의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인화된 개를 통하여 인간들의 생활을 풍자적으로 표현해 사진 안에 갇힌 개들도 정형화된 동작을 거듭 반복하는데 포즈를 취하는 일부 개들은 일종의 소품으로 취급되는 듯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 제3절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연구자 작품 분석

#### 1. 동물을 응용한 풍자적 표현

본 연구자는 학부생 시절 어미젖을 먹고 있는 돼지를 주제로부터 작품에 등장시켰다. 당시 돼지가 모성애가 많은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돼지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들을 찾아보면서 돼지를 주제로 그리는 작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당시 최석운작가와 임성희작가의 작품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돼지의 모습들을 보고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다. 이 두 작가의 작품들을 본 이후 본인은 돼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 비좁고 불편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이지만 본인의 작품을 통해 의인화시켜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돼지는 단순히 인간의 사육으로 인해 식용으로 키워지고 있지만 그러한 인간의 행위와 현대사회의 문제의식을 비판하기 위해 본인의 주제로 삼았다. 또한 욕망의 표현 대상으로서 돼지가 단지 대상화된 사물 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대체물로 표현하게 되었다. 때론 타락한 인간의 형태, 비판적, 탐욕스러움, 우아한, 지도자로 형상화 되어 표현함으로써 그 속에 내재된 상징적 의미들을 살려내었다. 작품에 따라 때로는 복(福)을 상징하기도 하고 현실의 비유에서 오는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중적 관념을 일깨움으로써 현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제를 부각 시키고 일상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담아내고 도시의 삶 속에서의 욕망에 모습들을 의인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의인화된 돼지의 모습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자의 작품 표현 방법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기 위해 캔버스에 큰 틀을 잡아둔 후 평소에 보아둔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합하여 돼지들의 다양한 상황을 우화적으로 재현해 낸다. 또한 돼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통통한 몸집과 동그란 코의 특징을 강조하여 탐욕을 강조하기 위해 코를 붉은 색 위주로 표현 한다.

작품에 그려진 돼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가 실제와 닮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와 인간을 흉내 내며 웃음 짓게 하지만 마냥 유쾌하지는 않다. 스스로를 가두면서 가식적으로 웃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삶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표정과 그 연출된 일상의 장면이 실제와 혼돈하게 만들면서 현실을 되풀이하게 하는 장치가 되어 현실을 홀로 살아가는 단면을 표현한다. 이로써 눈에 의해 인식되는 세계가 전부 아닌, 그 현실 너머에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화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가 실제와 닮지 않은 모습으로 현실로 다가와 가족으로써 의미를 뛰어 넘어 인간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실제와 같은 상황을 연출한다.

돼지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숭배의 대상으로서의 돼지이다. 이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의 농경 문화권에서 나타난다. 농경민들은 신성한 동물을 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쓰거나 결혼, 축제와 같은 주요 행사에 희생으로서 사용한다. 단백질을 공급하거나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돼지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농목지역인 중동지역 이슬람교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생존을 위한 생태학적 전략의 하나로서 척박한 기후조건으로 돼지가 잘 자라지 않고 식성이 곡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존에 득보다는 해를 입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고대 히브리인의 신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겨 먹거나 만지는 행위는 부정하다고 보았다.<sup>21)</sup> 대부분의 민담에서 등장하는 돼지들은 풍요를 상징하는 반면에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에서는 탐욕을 나타낸다.

일상에서 벗어나 본인만의 소박한 행복을 풀어내고자 앞에서 언급한 루이스 웨인의 작품 속에 보여지는 고양이와 임성희의 돼지가 사람의 흉내를 내듯 본인의 작품에도 돼지들이 사람의 흉내를 내고 있다. 돼지를 똑같은 모습이 아닌, 단순한 재현에 그치지 않고 캔버스에 현실세계를 해학적으로 상상해 돌아보게 한다. 그림 속에 나비넥타이를 메고,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물놀이를 즐기며, 목욕을 하고,

---

21) 오문섭, 『돼지 형상을 통한 자아 표현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0, p.20.

술을 마시고, 기타를 치며, 외양을 단장하고 속살이 흰히 들어나는 핑크 돼지로 탄생 시켜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똑같이 생긴 돼지들은 반복된 현실에서의 탈피를 꿈꾸는 일반인들을 표현시킴으로써, 인간의 욕망을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우화적으로 풀어 내고자한다.

<족욕중>(도판-24)을 보면 돼지우리가 아닌 목욕탕에서 양머리를 하고 음료수를 마시고, 물안경을 쓴 채 목욕을 즐기고 있고, 목욕탕 밖에는 먹다버린 바나나껍질, 사과 등 쓰레기가 널부러져있다. 돼지들은 돼지우리가 아닌 목욕탕에서 불편할 것 같은 장소와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하며 실제 이미지보다 해학적으로 변신하여 웃음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현대 여성들이 겉모습만 치장하고 다니는 내면의 지저분한 인간의 이미지를 고발하고, 그들은 무리지어 있으면서도 혼자 생활을 즐기고 있는 현대인의 외로움을 표현하였다. 현대사회의 단절된 모습, 보이지 않는 억압과 소외로 인해 지친 사람들이 미소를 띄울 수 있는 내면의 풍경을 담아내고자 한다.



(도판-24) 이다애, 족욕 중, 2011.

<Don't touch me>(도판-25)은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희생되고 무자비한 사육으로 사회 구조체제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전염병에 의해 본의 아니게 죽게 된 한 동안 마스크에서 떠들썩했던 구제역을 주제로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와 지방 단체의 생매장 덕분에 많은 돼지들은 여러 지역에서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지르며 생매장 됐다. 미리 사전 예방 접종을 했더라면 돼지들이 매장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돼지를 무가치하게 생각한 인간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왜곡된 미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수많은 돼지



를 땅 속에 생매장 시키면 시간이 지나면 썩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고 미래에 다시 밭에 올라와 다시 농작물로 환생될 거라는 본인만의 심오한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 하였다. 다음 작품은 <I am 샘>(도판-26)이다. 마르셀 뒤샹의 ‘변기’는 뒤샹이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실제 공장에서 생산된 변기를 그대로 미술관에서 가져옴으로써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을 원래의 용도를 박탈하고, 새로운 의미로 활용하면서 현대성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은 뒤샹의 레디메이드 변기를 본인만의 변기로 재구성 시켜 독립적인 공간으로 변기를 차용시켰다. 일상의 익숙한 모습들을 낯선 구조를 변기를 통해 하나의 장면을 연출 했다. 사막으로 보이는 곳에 선인장과 나무, 쉬고 있는 돼지들, 도로 위에 자동차를 밀고 가는 돼지와 탑승해 있는 돼지, 바나나를 보고 있는 돼지는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며 표현된 작품이다. 뒤쪽 야경에는 카지노가 보인다. 변기 밖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변기에서 충전하고 차 주인은 자동차 위에 올라가 휴식을 취하지만 옆에 있는 돼지는 부러운 듯 쳐다보고 있다. 그런 돼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표현하였다. 작품 전체를 보면 사막과 텐트, 자동차, 낙하산은 현실을 탈피 하고 싶어 한다. 변기에 팔을 걸친 두 마리의 돼지들은 슬픈 표정으로 변기 밖의 돼지들이 부러운 낭 보고 있다. 그들은 불편할 것 같은 장소와 상황에서 각자 행동하며 마냥 즐거울 리 없는 지루한 일상의 단편 혹은 혼자만의 공간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도판-25) 이다애, Don't touch me, 2011.



(도판-26) 이다애, I am 샘, 2009.

지금껏 연구자가 보여 주고자 하는 창작 과정은 탐욕의 표현으로 현대사회의 문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의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돼지의 모습을 다양한 표현을 갖게 하였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강자와 약자, 문화적 차이, 의견적 차이와 대립은 인간의 이기심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인간의 행동과 태도는 모두가 동등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2. 우화의 형식을 통한 탐욕의 표현

우화란, 인간 이외의 동물 또는 식물에 인간의 생활감정을 부여하여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유머 속에 풍자나 교훈을 나타내려고 하는 가상적 이야기이다. 우화 속에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동물들이 등장하는 것과 같이 본인의 작업에도 돼지가 등장하여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 한다. 세상의 모든 질서에는 양면적인 성질이 존재하는데, 우화는 소박한 문체(文體)속에서도, 인간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간직하고 있으며, 교묘하게 일상생활을 노출 시키고 있다. 사회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망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부조리한 것을 비평하기 위해 연극과 영화, 드라마 등을 통해 보여지는 것으로 현실을 해학적으로 풍자했다. 풍자의 내용은 사회와 개인의 악덕이나 어리석음을 들추어 내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풍자의 대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정치인 들 혹은 부유층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대가 그날질수록 풍자는 넘쳐난다고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풍자, 해학, 패러디, 블랙유머를 통한 현실 질서에 대한 반항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지만, 간섭과 제한이 심화 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사회 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감각과 의식을 통해 대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능동적으로 뭔가를 욕구하기도 하고, 대상을 변형시키려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열정과 일종의 추동력이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는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sup>22)</sup>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자만의 상상을 우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억제된 욕구를 상상을 함으로써 자아 속에 내제되어 있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자 우화의 형식을 통해 탐욕을 풍자하고 있다. 실제의 돼지는 우리에게 갇혀 살면서 인간이 주는 대로 먹고 산다. 사람들은 돼지가

---

22) 강유원, 김용섭 지, 「삶은 늘 우리를 배반한다」, 미토출판사, 2004, p30.

엄청난 먹성과 식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돼지는 자신이 먹을 만큼만 먹고 물러난다. 하지만 인간은 더 많은 고기와 돈을 벌기 위해서 좁은 우리에 가두고 돼지의 활동 에너지를 줄이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채워 넣고 살을 찌운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돼지의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지만 돼지는 이런 인간의 행동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 작품 <참아>(도판-27)속의 실제 식성이 많기로 소문난 돼지는 먹을 것을 외면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탐욕과 게으름, 폭식과 비만의 대명사로 통하는 '돼지'라는 별명은 이중적인 이미지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돼지는 훌륭한 먹거리로 우리와 함께 해오고 있지만, 풍성한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돼지 같다' 라는 별명은 어쩌면 너무 잔혹한 것 같다. 뚱뚱한 돼지의 모습은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의 상품화에 대한 시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대중들이 즐겨보는 미디어를 통해 CF, 광고에 날씬하고 잘생기거나 멋있는 사람들이 주로 나와서 몸매를 과시하고 홍보한다. 뚱뚱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숨 쉴 공간을 줄어둘게 하고 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신감을 충족시킬 수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살을 빼지 않아도 굳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탈모, 거식증, 우울증, 요요현상, 빈혈등 부작용도 있지만, 현대 사회는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를 권유하고 있다. 거식증은 누구에게 강제당하는 것도 아닌 자신이 자진해서 극단적인 기아 상태에 빠지는 질병을 거식증 또는 무식욕증이라고 한다. 다이어트란 본래 확보해두어야 할 하루치 식량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언제부터가 질병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영양식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것이 다시 오늘날처럼 오로지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사 제한의 의미로 변질되었다. 실제의 돼지는 팔을 머리에 받칠 수 없고, 다리를 올릴 수가 없다. 작품 <불타는 허벅지1>(도판-28) 돼지는 다리 살을 빼려고 요가 자세 중 하나인 팔과 다리를 올리고 다이어트 공을 발로 차고 다리를 올리는 모습이고, 불타는 허벅지의 제목은 친구가 다이어트 중 보던 동영상 제목이 불타는 허벅지였다. 그 영상을 본 뒤 떠올라 표현한 작품이다. <불타는 허벅지2>(도판-29)그림을 보면 통통한 다리 살을 빼려고 눈물을 흘리며 다이어트 공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 여성들이 뚱뚱하다는 말에 스트레스를 받고 "예뻐지고 싶으면 살을 빼라" 라고 외친다. 굳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에게 만족을 못해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날씬해지고 싶어 하는 욕망을 풍자한 작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도판-27) 이다애, 참아, 2010.



(도판-28) 이다애, 불타는 허벅지1, 2010.



(도판-29) 이다애, 불타는 허벅지2, 2010.

실제로 미국의 기업 가운데는 비만형의 사원을 자제심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곳이 있다. 눈에 거슬린다고 말하면 차별이 되고, 자제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멋진 해고 사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이지만<sup>23)</sup> 원시시대에는 풍만한 가슴과 복부를 가진 여성이 미인이었고, 그리스시대에는 건강한 인체미를 중시 하였다. 이때는 자연형의 탄력 있는 몸매, 사과모양의 가슴,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

23) 오히라 겐 저, 양역관 역, 「21세기의 욕망」, 푸른숲 출판.1999. p.98.

미인의 척도였다.<sup>24)</sup> 르네상스시대에는 통통한 턱과 풍만한 허벅지를 가진 성숙한 여성, 20세기 전반에는 큰 가슴과 풍만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 미인의 척도였지만 현대 시대에 풍만하면 뚱뚱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남미에서는 뚱보라는 말이 인간 차별이 아닌 명예로운 말로 통한다. 아무리 뚱뚱해 지려고 노력해도 풍족한 나라의 시점에서 보면 약간 통통한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가난한 나라가 많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도판-30) 이다애, 당신은 몸무게를 줄이는게 목표인가, 2010.

이와 같은 다이어트 <당신은 몸무게를 줄이는 게 목표인가>(도판-30)작품을 보면 돼지들이 쌓이고 쌓여서 "error"가 표시된 체중계에 올라가려고 의지하며 건너가려고 하고 있다. 제목과 같이 다이어트는 단지 몸무게를 줄이는 것인가? 여성들의 체중감량을 풍자한 것이다. 과도한 욕심으로 이미 체중계는 한도 초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심 부려 체중계에 올라가 자신의 몸무게를 확인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살이 찌야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간단히 말해 진심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미식가는 없다. 다이어트가 풍요로운 사회든 빈곤한 사회든 먹을거리에 곤란을 받지 않는 풍족한 계층의 풍습이라고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평소 별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음식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별다른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다이어트 경쟁에서 패배하고 우울증에 빠져드는 여성의 예는 드물지 않다. 고작 다이어트 때문에 병에 걸리다

24) 정혜정, 「풍만한 mass로 표현된 인체조각 연구」, 서립시립대 석사 논문, 2007, p.13.

니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건 경쟁이다. 작품 <freedom of pig-band> (도판-31)는 현대 사회에서 힘들고 지친 개인에 대한 욕망을 풀고자 밴드로 의인화 시켰다.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토끼가 두발로 걸어 다니고 고양이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본인은 돼지밴드를 만들었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가져오는 원인을 모를 때가 많다. 현대인은 스스로 최대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살아간다. 자유, 책임, 정의를 망각하고 최대한의 욕망 충족을 행복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돼지밴드 라는 뜻으로 일상이 반복되고 지쳐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본인의 작품 속에서라도 자유를 느껴 보자는 뜻으로 제작 하였다. 인간은 불안정한 가치관의 혼란과 불안한 심리 속에서 현실 탈피를 꿈꾼다. 그것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안타까움을 정신적인 피난처를 찾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과 환상을 연결하기 위해 현실에서 해결하기 못한 본인의 내면적인 욕구를 감정이입을 통해 사소한 행복을 누리하고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한 개만 더 살까?>(도판-32)는 마트에 쇼핑중인 엄마돼지는 카트 속에 껍 찬 돼지들과 뺨뺨이 진열된 물건을 보면서도 쇼핑중이다. 현대 소비사회의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보이면 사고 싶고,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이다. 실제 돼지는 마트에서 먹거리로 소비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매달려 있는 돼지와 진열되어 있는 돼지들, 카트 안에 돼지들을 채움으로서 생명체와 상품으로 표현했다. 카트를 밀고 있는 엄마 돼지의 모습은 무표정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현대인의 소비생활을 비판하듯 현대인의 욕망을 풍자적으로 표현 하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 소비에 의한 인간의 사회적 대우와 정체성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 시대이다. 비싼 외제차, 좋은 집을 가진 소유자는 오로지 물질만이 인격을 증명해 준다고 인식시키는 현실이 되었다. 이와 같은 탐욕을 표현 한 작품 <Luxury pig>(도판-33) 자동차 포니(pony)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급 자동차이다. 최초의 국산 자동차 모델 이었던 차가 이제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 추억의 한 권이 됐다. 한때는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포니를 소유할 수 있을 거라는 화목한 중산층이 되리라 굳게 믿었던 아름다운 시절을 가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세련되고 비싼 고급 자동차들이 줄을 지어 출시되어 현대에 이르러 포니를 타는 사람은 자동차 메니아 층이 아니고서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누구나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기를 갈망한다. 인간은 숨 쉬는 것처럼 소비를 한다. 소비하며 욕망을 드러내고 소비를 통해 인정이나 안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소비욕구, 안락의 추구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부와 과소비를 통해 인간은 본능적으로 ‘동등’의 욕구를 원한다. 작품 속에 돼지는 선글라스를 끼고 탑 원피스를 입고 한 때 부를 상징했던 포니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뒤쪽 트렁크에 누워 와인을 마시고 취한 돼지는 얼굴이 달아올라 여행 갈 생각에 흥뻑 빠져 있지만 고독해 보인다. 담장으로 얼굴을 반쯤 내밀고 훑쳐보고 있는 돼지는 상류층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러움에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의식과 생활 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요인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때 광고에 자주 등장했던 “부자 되세요” 라는 말처럼 ‘부자’ 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과 귀에 자주 오르는 까닭도 이러한 사회 인식을 보여 준다.<sup>25)</sup> 똑같이 생긴 돼지들이지만 서로 다르게 태어나 부에 대한 숭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소비 물질 사회 속에서 현대인의 빈부 격차를 우화적으로 의인화 시켜 풍자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소유물을 보면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탐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탐욕의 표현은 돼지가 가진 내면적인 이미지를 차용하여 우화의 형식을 통해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실제 작품 제작에 있어 시각적인 언어가 메시지 전달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

25) 김정락, 「미술의 불복종」, 서해문집, 2009, p.193.

## 제3장 결 론

인간에게 있어 동물은 적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며 생활 속 깊이 들어와 교훈이나 지식을 주는 캐릭터로 등장해 상징적인 의미를 준다. 회화에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신화와 미술사에서 의인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모습과 같이 반신반인의 모습으로 상징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되어 그 시대적 상황과 욕망, 사회적 문제를 의인화된 모습을 통해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인화된 과정을 통해 동물과 인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욕망은 인간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 인간 사회의 부조리한 일상들을 오노레 도미에와 윌리엄 호가스, 피터 브뤼겔의 작품세계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인간의 욕망, 허영심, 어리석음, 속물뿐인 왕과 정치인들을 냉혹한 시선으로 그려 그 시대를 표현하지만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세명의 작가작품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문제들은 현재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동물과 사회풍자적인 내용은 본 연구자의 작품에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해 사회적 문제를 표현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표현들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르네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통한 작품들이 신화 속에서 보여진 반신반인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동물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루이스 웨인의 고양이는 그 당시의 문화를 풍자하듯 고양이를 인간처럼 표현해 고양이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켰다. 끼 있고 교활하고 장난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사람처럼 옷을 입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습은 마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이 재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욕망과 동물이라는 소재는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를 통해 작품에 자연스럽게 투영된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조우 춘야와 윌리엄 웨그먼의 작품을 통해 자신이 키우는 개를 소재로 삼아 자신의 작품에 등장 시킨다는 공통점을 분석 할 수 있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색과 크기, 모습으로 표현해 작가만의 본능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돼지를 소재로 우화적으로 표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가 실제와 닮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와 우화의 형식을 통해 가축의 의미를 뛰어 넘어 인간의 모습으로 흉내를 내는 상황을 연출한다.



작품에 따라 복(福)을 상징하기도 하고, 부조리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 욕심 많은 현대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은 임성희의 작품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자의 작품 속 돼지들은 인간처럼 옷을 입고 두발로 서서 욕심에 가득차 걸모습을 치장하기 위해 소비생활과 탐욕적인 삶을 비판하지만, 임성희는 돼지 그대로의 모습을 차용해 다양한 표정으로 현실과 몽환의 세계를 뒤섞어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작품에 담겨진 본인의 사고를 현실에서는 찾아 볼 수는 없지만 미술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다양한 해석과 우화적 표현은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순수함과 소박함을 찾고, 공감과 교훈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오늘의(날)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욕심 많고 미련한 돼지의 모습이라 고정된 관념으로 바라보지만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의인화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의인화 표현에 대한 연구를 충실히 할 것이다.

동물의 이미지를 차용한 사회적 문제 의식을 통해 탐욕스러운 세상을 고발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본다.



(도판-31) 이다애, freedom of pig-band, 2011.

(도판-32) 이다애, 한 개만 더 살까?, 2011.



(도판-33) 이다애, Luxury pig, 2011.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1. 강유원, 김용섭 지 「삶은 늘 우리를 배반한다」, 미토출판사, 2004.
2. 김정락, 「미술의 불복종」, 서해문집, 2009.
3. 김현화, 「미술,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도시가 되다」, 이담북스, 2010.
4. 윤일권, 「그리스 신화의 반항아들」, 사군자출판, 2006.
5. 이명옥, 「팜므 파탈, 치명적 유혹, 매혹당한 영혼들」, 다빈치, 2003.
6.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할미디어, 2011.
7. 최민우, 「루이스 웨인의 웃기고 슬프고 이상한 고양이들」, 저공비행, 2012.

### <국외 문헌>

1.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저, 최종고 역, 「도미에의 사법 풍자화」, 열화당, 1900.
2. 다카시나 슈지 지, 신미원 옮, 「명화를 보는 눈」, (주)놀와, 2002.
3. 오히라 겐 저, 양억관 역, 「21세기의 욕망」, 푸른숲 출판.1999.

### <학위논문>

1. 안병학, 『Honoré Daumier의 諷刺畫 研究』, 영남대 석사논문, 1986.
2. 오문섭, 『돼지 형상을 통한 자아 표현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10.
3. 이건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동물형상에 대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2011.
4. 정혜정, 『풍만한 mass로 표현된 인체조각 연구』, 서립시립대 석사 논문, 2007.

### <인터넷 자료>

1. 네이버 지식 백과

### <참고 도판 목록>

- (도판-1) 페테르 파울 루벤스, 사슬로 묶인 프로메테우스, Oil on canvas, 209.5 x 243.5cm, 1611~1612, 필라델피아 미술관 소장.
- (도판-2) 에티엔 조라, 바다의 신 넵투누스, Oil on canvas, 1699~1789, 루브르 박물관 소장.
- (도판-3) 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메두사, 60x55cm, 나무방패에 붙인 캔버스에 유채, 1596~1598년경, 우피치 미술관 소장.
- (도판-4) John William Waterhouse, 인어, Oil on canvas, 1892~1900, 런던.
- (도판-5) Sandro Botticelli, 비너스의 탄생, 1485~1486, 175x280cm, 캔버스에 템페라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 (도판-6) 오노레 도미에, 가르강튀아, 석판화, 30.5x21.4cm, 1831, 파리 국립도서관 소장.
- (도판-7) 오노레 도미에, 각료석에 앉은 의원들의 배, 석판화, 1834.
- (도판-8) 윌리엄 호가스, 진거리, 38x32cm, 판화, 1751, 영국 박물관 소장.
- (도판-9) 윌리엄 호가스, 맥주거리, 38x32cm, 판화, 1751, 영국 박물관 소장.
- (도판-10) 피터 브뤼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는다, 판화, 1556.
- (도판-11) 작가 미상, 호랑이가족, 종이에 채색. 59x39.5cm, 19세기 말 ~ 20세기 초, 일본 세리자와케이스케미술관 소장.
- (도판-12) 조우춘야, Two TT, 아마포에 유화, 250x200cm, 1997.
- (도판-13) 임성희, 행복한 중독, Oil on Canvas, 130x97cm, 2008.
- (도판-14) 임성희, 미스'진', Oil on Canvas, 53x45.5cm, 2008.
- (도판-15) 임성희, 정복자, Oil on Canvas, 148x148cm, 2010.
- (도판-16) 르네마그리트, Song of Love, 72x59.5cm, Oil on canvas, 1914.
- (도판-17) 르네마그리트, 공동의 발명, 73x116cm, Oil on canvas, 1935.
- (도판-18) Louis Wain, 사교계 여성의 데뷔, 첫 시즌, 수채화.
- (도판-19) Louis Wain, 휴가철 기차역, 수채화.
- (도판-20) Louis Wain, 초기 인디언 아일랜드풍, 수채화.
- (도판-21) Louis Wain, 초기 인디언 아일랜드풍, 수채화.
- (도판-22) William Wegman, Mother and Daughter, 76x61cm, Pigment Print, 1994~2009.
- (도판-23) William Wegman, Walker, 76x61cm, Pigment Print, 1991~2009.

### <본인 도판 목록>

- (도판-24) 이다애, 족욕 중, 90.9x65.1cm, oil on canvas, 2011.
- (도판-25) 이다애, Don't touch me, 140x140cm, oil on canvas, 2011.
- (도판-26) 이다애, I am샘, 162x130, oil on canvas, 2009.
- (도판-27) 이다애, 참아, 20x20cm, oil on canvas, 2010.
- (도판-28) 이다애, 불타는 허벅지1, 20x20cm, oil on canvas, 2010.
- (도판-29) 이다애, 불타는 허벅지2, 20x20cm, oil on canvas, 2010.
- (도판-30) 이다애, 당신은 몸무게를 줄이는게 목표인가, 75x130cm,  
oil on canvas, 2010.
- (도판-31) 이다애, freedom of pig-band, 130.5x110cm, oil on canvas, 2011.
- (도판-32) 이다애, 한 개만 더 살까?, 111x150cm, oil on canvas, 2011.
- (도판-33) 이다애, Luxury pig, 130.3x89.4cm , oil on canvas, 2011.